

저는 죄인입니다.

정외로운 입에 앞장서기조차 미흡한 죄인이올시다. 그런데 요즘 이땅의 젊은세대들이 경외를 부르짖다가 고문을 당하는 현장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이들의 신음소리가 제 귓전에 마치 물탱크에 갈우고 망치를 두들겨대는 신종 고문행위로 인하여 창자가 뒤돌리는 아픔처럼 느껴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민족이 악하구나" 외마디 비명이 저의 입에서 자꾸 터져 나옵니다. 고문에 관한 이야기들은 고문을 당한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하여서만 제기되어 온듯하고 저같은 사람마저 너무나 때늦게 자각한 아픔이 더 아려 올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사람의 총대가 아닌 하나님의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고문행위는 금지되고 고문에 의한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도 없고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형법에는 고문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중한 처벌 규정을 두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고문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까지 인정되는등 분자 그대로 기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흉악범, 국사범, 양심범등을 막론하고 이들에 대한 고문행위는 악한 처사이며 그같은 악행을 그리스도인이 외면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제가 이 민족 독립운동가 즉 양심수에게 가혹하게 고문행위를 자행했던 일본은 그같은 범행에서 이미 손을 깨끗이 씻고 거듭난 민주국가 되었건만 모질게 당해온것도 서러운 우리민족이 아직도 우리끼리 그 악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고문기술마저 더욱 극악해지고 첨단기술까지 동원된다고 하니 이 어찌 뼈아픈 비극이 아닐까요! 여기에 인권위원회의 자료중 일부 그 끔찍스러운 참상을 인용합니다.

윤용식(항소이유중에서)은 1985. 8. 28. 체포되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수사는 고문에서 고문으로 끝날만큼 잔인했다. 온몸을 발기뻗긴채 고문대(그곳에서는 이를 칩성판이라 부르고 관속의 바닥에 까는 널조각을 말함. 즉 칩성판 위에 묶인 사람은 산송장과 다름없다는 뜻이라 한다.) 위에 공공목어 밧집본이고 계속 해서 물을 먹인다. 움직일 수 있는 것

은 손가락과 발가락뿐 물을 먹기 시작한지 한참 지나면 위속에 있는걸 전부 토해낸다. 그리고도 계속 물을 먹으면 방귀를 쀌게 되고 똥을 누게 된다. 그리고는 실신이다. 이번 고문이 처음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되었고 9월 1, 2일 경에도 또 한차례 행하여 졌다. 고문을 당하게 되면 또다시 고문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수사관이 손바닥만 짚어도 심장이 떨리고 고도소로 송치된 후에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으며 덜컹덜컹 문어는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게 된다.

김근태(1985. 12. 19. 서울 지방법원 118호 법정에서의 진술) 그는 이 사건이 지난 9월 한 달동안 남영동에서 동물적 농욕과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생명에 대한 위협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주장한다. 유일한 고문의 흔적인 발뺨금치 상처 따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1985. 12. 13. 변호인들에게 제시하려 하였으나 구치소 공무원 10여명에 의하여 빼앗겼다고 한다. 새로운 사심에 대한 심문이 시작될때마다 언제나 고문부터 시작되었고 고문대에 올려놓고 고문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암기시키고 학습시키고 복습을 시킨다. 9월4일부터 9월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5시간 정도 당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했고 고문을 당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디오를 크게 틀었고 비명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복을 트이게 한다. 9월13일 고문자들은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날이다." 협박하며 두차례의 전기고문을 당했다. 20일 전기고문 물고문 한차례 25일 집단적 구타를 당하였다. 잠을 못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것도 절반쯤이 되며 고문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다. 9월 8일 소위 이사건을 지휘하는 사장이 나타나 "콧구멍에 고추 가루를 넣어서 x해서 x하게 만들어 버려라. 내가 직접 이것을 지휘하겠다" 고 말하고 또 전투라는 자는 "정치가 법보다" "주먹이 법보다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댐시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장외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제문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과오 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줄테니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며 압력이 된 상태로 눈을 가린채 고문대 위에 묶어 놓고 동물적 농욕을 가했고 "이것도 x이라고 답고 다니, 민주화 운동을 하는 놈들은 다 이

따위냐"며 성적인 모욕까지 가했다. 그 다음에 고문대 위에 누르고 발목과 무릎팍과 허벅지와 배, 가슴등 다섯군 데를 묶어놓고 그 밑에 담요를 깔고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도록 물을 부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가며 전기고문을 하였다.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는 노래를 부르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하며 죽을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은 고문하면서 "시집간 딸이 잘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등 이처럼 고문과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인가. 고문을 전담했던 어떤사람은 "고문을 하는 것을 보고 구역질났다. 여기서 빨리 나가라. 허위로라도 다 인정해라.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는다"며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한다. 그가 9월25일 만신창이가 되어 항복하는날 마침내 고문하는자들은 집단폭행을 가한후 압력으로 바닥을 기며 삼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라고 강요하였다.

김문수 (1986. 5. 6.부터 국군보안사령부 거역등 소재 속칭 송파보안사에서 당한 고문을 5. 16. 처음으로 면회가 가능했던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설남영에게 폭로한 내용) "그놈들은 완전히 인간배경이었어! 6일밤 잠실에서 연행될때 차안에서부터 무자비하게 짓밟고 보안사에 도착하자마자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무자벌 구타하던군...발가벗겨 의자에 묶어놓고 찬물을 끼얹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전선을 감고 전기고문을 하는데..그때가 제일 미칠것만 같았어...두번 당했지. 또 거꾸로 매달고 손수건으로 눈을 가린 다음에 입과 코로 고추가루를 기절할때까지 들이붓고. 그걸 다섯차례나 당했어. 정말이지 죽고 싶던군. 뿐만아니라 전기몽둥이로 입주입동안 계속 지지고 때리고...전기고문때문에 배에 붉은 반점이 생겨 온몸으로 퍼지는데 치료를 하니까 차차 없어졌어. 몽둥이 찌질을 하고 나면 뜨거운 물에 한참 담가두었다가 안티푸타민을 온몸에 발라주고..고리고 나서 또 때고...비명소리때문에 낮이고 밤이고간에 잠을 잡 수가 없었어. 너나없이 다 당했지만 이준복씨가 특히 많이 당했지". 가족들은 17일 이후 면회를 이용하여 계속 고문사실을 확인하였다. 납치된 활동가들 모두가 남념 불 불문하고 물고문과 몽둥이 찌질을 당했다. 고문자들은 5월7일 자금출처를 자백하지 않는다고 송재섭씨의 콧구멍에 찌우면 담배불을 집어넣었는가 하면 "간첩보다 더 독한년"이라며 윤현숙씨에게 5월8일에서 6일까지 고추가루 물고문, 몽둥이 구타를 계속하면서 궁중에 매달아 "비행기 배우기", 의자에 묶어놓고 다리사이에

과목을 넘어 비트는 "주 리를 기"라는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고문을 가했다. 또 서해경씨의 경우 눈을 때려 양눈의 흰자위 심피질을 까그리 터뜨려 앞을 잡 못보게 만들어 놓았다. 최한배씨는 첫면회때 얼굴 왼쪽 절반이 시커멓게 멍든 채였고 청계노조의 황만호씨 역시 상체가 피멍 투성이고 손톱 밑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다. 너무 심한 고문을 당하여 보안사에서 사흘간이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던 김문수씨는 그후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걸음을 잡 걸지 못하며 땀을 함때 머리가 울리고 온몸이 떨리는 등 김근배씨의 경우와 꼭 같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첫면회시 부인 설난영씨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배꼽 양쪽의 굵은 주사바늘 자욱과 목부위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전신파박상으로 인해 몸을 만질수도 없었으며 왼쪽 귀부위가 엄청나게 부어올라 안경조차 껴 수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군복을 입혀놓고 고문을 했기 때문에 17일 밖으로 내어온 윤연숙씨의 속옷에는 푸른물과 핏자욱이 얼룩져 있었다. 윤연숙씨는 "상처와 피멍은 뜨거운 물에 담가두었다가 약을 발라서 없앴기 때문에 엉덩이 등 벗을 수 없는 부분에만 피멍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송파보안사의 고문실을 거쳐간 사람이 줄잡아 50여명은 된다고 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고문하는 공무원들은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도 먹고살 수 있다"며 태연하게 고문행위를 한다. 우리교회청년 대학생들이 1986. 5. 30.부터 6. 1.까지 새문안교회에서 모여 시국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가졌읍니다. 그들은 우리 어른들과는 달리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나라 이민족을 위한 기도분이었읍니다. 이나라 이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펴고 싶고 그의 정의를 세우고 싶다는 믿음의 결의분이었읍니다. 물론 어른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 비판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솔직히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모든일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으며 비판을 면할 수 있는 뚜렷한 입장입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야량도 필요합니다. 또한 저는 그들의 외침을 그들의 시대에 가서 얼마만큼 실천해 내는지를 지켜볼 작정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망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위하여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구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눈에는 그들이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떴을랐읍니다. 혹독한 고문끝에 땀이 처분된 세면바닥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뜰수 있을때 비쳐오는 글귀는 간신히 피를 띠며 손톱으로 새겨둔 자곡 "주여 도와주소서. 천주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천사들의 간구라고 합니다. 주여. 왜 우리민족은 이렇게 악한 심성을 가졌을까요. 우리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다. 이 악한 행위가 이땅에서 근절되고 곳곳에 숨겨진 그 악한 고문 도구들이 쓰레기통으로 폐기처분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그 때에 회개하지 않고 고문행위를 하는 자가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다.

이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소리내어 울부짖을 용기가 없다면 주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리없이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대한민국 어느 싹정법에 저촉될까요? 어떤 양심 부분에 걸리나요? 그리스도인의 정신바탕에 어긋나는 소행이 되나요? 이 민족 속에서 이같은 고통적인 악습이 폐지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시자는 제안입니다. 일간신문에서 본바와같이 현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진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하여 가혹한 고문행위는 버려야 할 일제의 잔재임을 자각하시다. 지금이 바로 이 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민적 의식개혁과 참회의 자세 및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기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땅에서 고문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에 동참하시고 곳곳에 위장된 고문장소를 밝혀내어 선용하게 하며 고문도구의 완전폐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황 산 성 변호사 올림